研究論文

송강 시가에 나타난 군주의 특성 고찰

고영화
인천대학교 국어교육과 전임강사, 고전시가교육 전공
cine71@incheon.ac.kr

I. 머리말
II. 군주에 부여된 고움의 자질
III. 고움이 표상하는 순수미의 세계
IV. 군주에 대한 보살핌과 연군의식
V. 맺음말

I. 머리말

사전의 의미 풀이에 의하면 '아름답다', '예쁘다', '곱다'와 같은 형용사는 해당되는 대상이 여성적인 것일 때 주로 사용된다. 그런데 그 정도성은 '예쁘다'가 '아름답다'보다 더 여성적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주며, '곱다'는 남성적인 것에는 쓰이지 않는다고 한다.[1] 즉, 이들 가운데에서 여성적인 의미가 가장 큰 형용사는 '곱다'이며 가장 작은 것은 '아름답다'라는 설명이 된다.

그런데 송강의 작품에서 자주 등장하는 형용사 '곱다'는 그것이 실제 여성에 대한 묘사로 쓰인 것이 아니라 남성인 임금을 표현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어 흥미롭다. 이른바 고운 님으로 지칭되는 대상은 송강 시가에서 언제나 군주인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다른 작가와 비교해 보았을 때 더욱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연군의 모티프를 담은 고산의 시조에서는 수식어 없이 '님' 또는 '님군'으로 언급되거나 '옥황'이라는 비유어가 사용되는 등, 여성적인 의미는 특별히 부여되지 않고 있다.

형용사의 주요 기능은 명사를 수식하고, 명사에 내포되어 있지 않은 의미를 부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곱다'는 순수하게 색상이나 형태 등을 묘사하는 기술형용사와는 달리 대상에 대한 객관적 혹은 주관적 평가를 행하는 가치평가형용사에 속한다. 그렇다면 군주에 대한 표현으로서 여성적인 의미가 강한 '곱다'라는 형용사를 선택함은 그를 통해 대상에 어떤 의미를 부가하는 것이며, 이는 대상에 대한 작가의 자세를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이때의 자세란 대상에 대한 모종의 신념, 소망, 욕구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대상에 대해 가치평가를 하는 행위는 대상 자체에 관한 서술로만 그 역할이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대상과 주체 사이의 관계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글은 군주를 형상화함에 있어서 자주 등장하는 '곱다'의 의미분석을 통해 송강 시가의 일면을 새롭게 조명해보고자 한다. 송강 시가에 관해 이루어진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여성 화자의 선택이나 어조 등과 같이 주로 시적 화자 자체에 주목해왔던 것[2]과는

---

1) 임홍빈 편저, 『한국어 사전』(랭귀지 플러스, 2009).

달리, 시적 화자에 의해 포착되고 있는 군주의 모습을 분석함으로써 송강 시가의 또 다른 특성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3] 이를 위해 군주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는 다른 작가들의 작품과 비교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한다.

II. 군주에 부여된 고움의 자질

작품 속에서 특히 애용되는 형용사는 작가의 세계관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좋은 단서가 된다. 송강, 고산, 노계의 시조에 사용된 형용사 어휘를 분석한 연구[4]에 의하면 '곱다'는 송강 시조에서 유독 애용되었음을 알게 된다. 다른 두 작가가 대상의 속성을 파악하면서 고움의 자질을 그리 의미 있게 유표화하고 있지 않은 반면, 송강 시조의 경우 성상형용사 중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곱다'였다. 그의 시조에서 2회 이상 빈도의 성상형용사 목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회 : 곱다, 머흘다
3회 : 외다, 셟다
2회 : 살지다, 뷔다, 옳다, 초초하다, 졈다, 들다, 희다, 쉽다

이에 비해 노계의 시조에서의 성상형용사는 '아니다' 9회, '重ᄒᆞ다' 7회, '높다' 5회, '깊다' 4회, '곧다' 3회, '길다' 3회, '罔極ᄒᆞ다' 3회, '멀다'

---

2) 이혜순, 「15·16세기 한국 여성 화자 시가의 의의」, 『한국문화』 19집(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7); 정인숙, 「가사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목소리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2001); 조세형, 「송강 가사에 나타난 여성 화자와 송강의 세계관」,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집(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2), 257-283쪽; 최규수, 「송강 시가에서 자의식의 비유적 형상화와 여성 화자의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5집(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2), 263-289쪽.

3) 군주가 표현된 송강의 모든 작품에서 고움의 자질이 유표화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수식어 없이 님으로만 표현되거나 아예 그러한 표현 없이 표상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훈민시조와 같이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군주와 백성 사이의 관계를 노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강 시가에서 군주의 자질로 특별히 부여되고 있는 요소를 찾는다면 고움과 관련된 의미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송강 시가의 특성을 설명할 때 군주를 고움의 자질로 포착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에 두는 것이 논의 전개의 효율성에 기여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2장의 작품에 등장하는 형용사 분석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4) 박태남, 「시조 어휘의 작가별 고찰」(서울대학교 대학원, 1973), 16-44쪽.

2회, ‘넓다’ 2회, ‘크다’ 2회, ‘最貴ᄒᆞ다’ 2회, ‘저흡다’ 2회의 분포이다. 이들은 곧고 바른 인격을 나타내는 데 쓰이며 작가의 윤리의식과 도학자적 인생관을 반영하는 단어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고산의 시조는 ‘맑다’ 7회, ‘멀다’ 7회, ‘아니다’ 6회, ‘엇더ᄒᆞ다’ 5회, ‘길다’ 5회, ‘만슈무강ᄒᆞ다’ 4회, ‘곳다’ 3회, ‘깊다’ 3회, ‘하다’ 3회, ‘프르다’ 3회, ‘갓갑다’ 3회, ‘놉다’ 2회, ‘한가ᄒᆞ다’ 2회, ‘븕다’ 2회, ‘외다’ 2회, ‘좋다’ 2회, ‘치웁다’ 2회, ‘뭡다’ 2회, ‘반갑다’ 2회, ‘슬프다’ 2회의 분포를 나타낸다. 송강이나 노계의 시조에서와는 달리 색채형용사가 총 8회 사용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처럼 대표적인 고시조 작가라고 할 수 있는 3인의 작품에서 사용되고 있는 형용사의 목록은 작가별 특징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는바, 송강의 작품에서 최고 빈도를 나타내는 ‘곱다’라는 형용사가 고산이나 노계의 작품에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고 있어 흥미롭다. 고산의 작품 중 ‘고은 볏치 쐬엿는듸 물결이 기름 ᄀᆞᆺ다’와 같은 용례가 있기는 하지만 인간의 자질이 아닌 기상 현상에 대해 쓰였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노계의 경우 주로 중요함, 높음, 깊음과 같은 성질에 관심사가 놓여 있으며, 고산의 작품에서는 맑음, 곧음, 깊음, 푸름 등이 대상의 긍정적인 요소로 언급된다. 즉, 긍정적인 의미의 성상형용사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었던 것을 작가별로 정리하면 송강은 ‘곱다’이며 노계는 ‘重하다’, 고산은 ‘맑다’가 된다.

이와 같이 다른 작가들에 비해 송강 시조에서 ‘곱다’가 애용된 것은 작가의 독특한 미의식과 가치관의 일면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송강의 시조에서 ‘곱다’와 함께 ‘머흘다’가 가장 많이 사용된 성상형용사였다는 사실은 대상의 고움과 거칢에 관심이 많았음을 드러낸다. 이는 대상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그것의 시비를 판단하거나 도덕적 가치 평가를 내리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매우 감성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짙었음을 말해준다. 노계의 시조에서 많이 쓰인 ‘重하다’는 대상의 진위나 선악 등을 고려하여 판정한 결과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형용사며, 고산의 ‘맑다’는 긍정적인 인격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그러나 송강 시가에서의 ‘곱다’는 이러한 도덕적 판단보다는 대상이 주는 감성적 측면을 중요하게 수용한 결과이다.

그런데 송강의 시조에서 이 형용사가 다른 대상과는 결합하지 않는

대신 군주의 속성을 표현할 때에만 사용된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고시조를 대상으로 사용된 단어들의 빈도를 조사한 연구[5]에서 밝힌 바 있듯이 '곱다'는 전체 형용사 가운데 13위를 차지하는, 시조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단어들 가운데에 속한다. 그리고 쉽게 예측할 수 있듯이 다른 시조들에서 곱다는 님, 여인, 꽃 등과 함께 사용되는데 이때의 님은 주로 여성이다.

그러나 송강의 시가에서 '곱다'는 남성인 군주를 한정하는 역할에 충실할 뿐이다. 군주 이외의 인물이나 사물 등에 이 형용사가 나타나는 예는 찾을 수 없다. 또한 송강의 시조와 가사를 통틀어 '곱다'라는 형용사가 서술형이나 다른 활용형으로 사용된 예는 하나도 없으며 항상 관형어 형태로 님을 한정하는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내 ᄆᆞᄋᆞᆷ 버혀 내여 뎌 ᄃᆞᆯ을 ᄆᆡᆼ글고져
九萬里 長天의 번드시 걸려 이셔
<u>고온 님</u> 계신 고ᄃᆡ 가 비최여나 보리라

辛君望 校理 젹의 내 마ᄌᆞᆷ 修撰으로
上下番 ᄀᆞ초와 勤政門 밧기러니
<u>고은 님</u> 玉 ᄀᆞᄐᆞᆫ 양ᄌᆡ 눈의 黯黯ᄒᆞ여라

기울 계 대 니기니ᄯᅡ나 쵹박귀 업거니ᄯᅡ나
비록 이 세간이 판탕ᄒᆞᆯ만정
<u>고온 님</u> 괴기옷 괴면 그를 밋고 살리라

예서 ᄂᆞᆯ애를 드러 두세 번만 붓츠면은
蓬萊山 第一峯의 <u>고온 님</u> 보련마ᄂᆞᆫ
ᄒᆞ다가 못ᄒᆞᄂᆞᆫ 일을 닐러 무ᄉᆞᆷ ᄒᆞ리

이처럼 군주와 긴밀히 결부되어 나타나는 '곱다'의 독점적인 사용 양상은 이 단어에 송강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여 한정적으로 사용하였음

5) 이 연구는 총 2376수의 시조를 대상으로 삼아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정병욱, 『증보판 한국고전시가론』(신구문화사, 1983), 251쪽.

을 짐작하게 한다. 더욱이 현대적인 정서로서는 남성인 군주와 '곱다'라는 형용사의 결합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면밀한 해석은 송강 시가의 미의식을 깊이 있게 파악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군주를 고운 님으로 지칭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굴원 초사의 영향을 떠올리게 한다.[6] 송강 가사의 제목에서도 굴원의 〈사미인〉은 그 영향력을 선명히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송강 이후 생산된 여러 편의 연군가사에까지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굴원의 작품에서 미는 송강의 고움과는 좀 다른 의미 자질을 갖는다. 즉, 아름다움, 미덕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한 것이다. 굴원의 〈이소〉에서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나와 함께 아름다운 정치 펼칠 사람 이미 없으니　　旣莫足與爲美政兮

진정으로 아름다운 두 사람이라면 반드시 합해지기 마련이니　兩美其必合兮

누구나 아름다움 사람 구하면서 그대를 그대로 두겠는가?　　孰求美而釋女

위의 인용문에서 아름다운 정치는 올바르고 좋은 정치의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아름다운 두 사람이 합해진다는 것은 훌륭한 군주와 신하가 만나게 되기 마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편 군주의 속성으로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화자에게도 사용된다. 아름다운 사람을 구한다는 것은 군주가 나라를 바로 이끌어갈 만한 역량 있는 신하를 찾는다는 것의 비유적 표현이기 때문이다.

위의 예들에서 알 수 있듯이 굴원의 작품에서 미는 고움의 의미보다는 바람직한 것, 훌륭한 것의 의미 범주에 속한다. 즉, 곱다보다는 아름답다라는 형용사로 바꾸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이다. 이는 곱다라는 단어보다 상위의 의미 범위를 가지고 운용되는 형용사 아름답다의 일반적인 용례와도 부합된다.[7]

---

6) 굴원의 문학이 송강에 미친 영향에 대한 논의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서수생, 「송강의 전후미인곡의 연구」, 『논문집』 6집(경북대학교, 1962), 15-22쪽; 김갑기, 「송강 정철 문학의 원류론」, 『송강문학연구』(국학자료원, 1993), 444-451쪽; 김진욱, 「굴원이 정철 문학에 끼친 영향 연구」, 『고시가연구』 11집(한국고시가문학회, 2003), 72-88쪽.

이처럼 굴원의 작품에서 주요 모티프를 수용하되, 아름다움을 고움의 미학으로 일관되게 변용시키고 있는 것은 송강 시가에서 찾을 수 있는 특징이다. '美ᄂᆞᆫ 아ᄅᆞᆷ다ᄫᆞᆯ 씨니'와 같은 뜻풀이가 『석보상절』에 나오며, '곱다'는 美보다는 대개 麗나 娟 등의 한자어를 풀이하는 데에 사용되었음[8]을 참고하면 더욱 그러하다.

한편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의 영향하에 창작된 조선후기 연군가사들[9]과 비교했을 때에도 송강 시가의 특성은 부각된다. 이들 작품에서 읽을 수 있는 군주에 대한 묘사에는 송강의 작품과 적지 않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긍익의 〈죽창곡〉, 이진유의 〈속사미인곡〉, 류도관의 〈사미인곡〉 등에서 곱다라는 형용사는 군주뿐만 아니라 화자 자신에 대한 묘사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즉, '곱다'라는 어휘가 군주의 특성을 대표하는 어휘로서의 독점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荊棘의 ᄯᅥ딘 불이 蘭惠叢의 붓터오니
내 얼골 고은 줄을 님이 엇디 알으실고
畵工의 붓긋흐로 그려 내여 울닐 손가

-이긍익, 〈죽창곡〉

님이 언제 薄情ᄒᆞ여 날 待接 疎히 ᄒᆞᆫ가
내 얼골 곱돗던지 嫉妬ᄒᆞᆯ 산 衆女로다

-이진유, 〈속사미인곡〉

北方의 고은 님이 玉樓의 계신ᄃᆞᆫ ᄃᆡ
玉 ᄀᆞᆺ튼 죠흔 양ᄌᆞ 하ᄂᆞᆯᄀᆞᆺ튼 어진 덕이
곳ᄀᆞᆺ치 향기롭고 ᄃᆞᆯᄀᆞᆺ치 두렷ᄒᆞᆫ 말
[…]

---

7) 고움은 아름다움의 협의로서 아름다움의 개념보다 소규모의 구체적 개념이다. 역사적으로도 고움이란 말은 아름다움이란 말과 동시에 사용되었고 그것은 현행어의 미려와 같은 뜻으로 쓰였던 것이다. 곱다라는 말은 사물의 질이 윤택, 유순, 온아, 치밀, 세련된 것을 지칭하는 것이며, 아름답다는 어감보다는 더 정적인 어감을 준다. 백기수, 『미학』(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108-110쪽.

8) 남광우 편저, 『고어사전』(교학사, 2008).

9) 조우인, 김춘택, 이진유, 이긍익은 정파적 맥락에서 송강의 가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새로운 창작의 원천으로 삼았으며, 류도관은 가계의 맥락에서 송강 시가의 영향을 받아 연군가사를 창작하였다. 김진희, 「송강가사의 수용론적 연구」(연세대학교 대학원, 2009), 193-194쪽.

三千宮 고은 顔色 ᄂᆞᆺᄂᆞᆺ시 仙女어ᄂᆞᆯ
날ᄀᆞᆺ튼 菲薄女ᄅᆞᆯ 도라나 보실넌가
[…]
너ᄅᆞ고 놉픈 긔샹 이 아니 님이신가

-류도관, 〈사미인곡〉

특히 류도관의 〈사미인곡〉에서는 '곱다'라는 형용사가 군주나 화자뿐만 아니라 임금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궁녀를 표현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 작품에서 형용사 '곱다'는 군주라는 특정 대상에 한정하여 의미가 부여된 용어로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로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님에 대한 속성으로서 '곱다'뿐만 아니라 좋다, 어질다, 향기롭다, 뚜렷하다, 넓다, 높다 등의 다양한 요소가 거론되고 있어 고움이라는 자질이 갖는 무게감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고움은 고운 님과 같이 그저 임금을 지칭하는 관습적인 호칭의 역할 정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후기 연군가사들이 송강 시가의 지배적인 영향하에 창작되었지만, 군주에 대한 형상화 방식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지니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III. 고움이 표상하는 순수미의 세계

앞 장에서는 송강 시가에서 '곱다'라는 형용사가 군주에 대해 독점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살폈다. 이제 이 형용사의 의미를 좀 더 깊이 분석함으로써 송강이 군주의 속성으로 상정하고 있는 바를 추출해내고, 이를 통해 송강 시가에 나타나는 연군의식의 특성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먼저 『이조어사전』에서 '곱다' 항을 찾아가면 현대어 '곱다'로 풀이되어 있는바, 그 의미는 현대에서의 의미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ᄐᆞᆶ 비치 곱도다'나 '얼구리 고오ᄆᆞᆫ'과 같은 예를 제시하고 있다.[10]

한편 국어사전에서는 '곱다'의 의미가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모양, 생김새, 행동거지 따위가 산뜻하고 아름답다.

10) 유창돈, 『이조어사전』(연세대학교출판부, 1964), 72쪽

· 색깔이 밝고 산뜻하여 보기 좋은 상태에 있다.
· 소리가 듣기에 맑고 부드럽다.
· 만져보는 느낌이 거칠지 아니하고 보드랍다.
· 상냥하고 순하다.
· 편안하고 순탄하다.
· 그대로 온전하다.
· 모조리 흔적을 없애다.[11]

위의 해설에서 주목되는 바는 이 형용사가 마음이나 말씨 따위가 상냥하고 순한 성질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대상이 지닌 부드럽고 맑은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처럼 거친 것이 없는 데에서 느끼는 미의식인 고움은 군주로서의 위엄이나 능력과는 다른 범주에 속한다.

송강의 연군시가와 관련시켜 굴원의 작품이 자주 거론되어 왔지만, 굴원의 〈이소〉에서 군주는 고움의 모습으로 일관되게 그려지는 송강의 시가에서와는 매우 다르게 형상화된다.

임금께서 나의 진정 살피지도 않으시고	荃不察余之中情兮
오히려 참언만 믿으시고 벌컥 화를 내시네.	反信讒而齎怒

위 인용문에는 조정 대신들의 참소를 믿고 진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군주의 무능과 그로 인해 추방당하게 된 것에 대한 억울함이 표현되어 있다. 그런데 이처럼 몹시 노한 모습으로 그려지는 군주의 형상이란 송강의 시가에서는 좀처럼 찾을 수 없다. 송강의 시가에서 군주는 항상 물같이 고운 자태를 간직하고 있으며, 매우 정적인 모습이다. 강하고 거친 요소가 전혀 없으며 부드럽고 조용할 뿐이다.

또한 사전의 해설에서 이 형용사가 조금도 다치지 않고 온전한 상태를 뜻한다고 한 점도 주목을 요한다. '곱다'라는 형용사와 함께 송강 시가에서 군주의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비유어로는 물과 옥을 들 수 있다. 〈속미인곡〉에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님을 뫼셔 이셔 님의 일을 내 알거니

---

11)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두산동아, 1999), 498쪽.

믈ᄀᆞ튼 얼굴이 편ᄒᆞ실 적 몃 날일고
[…]
졍셩이 지극하야 꿈의 님을 보니
옥 ᄀᆞ튼 얼굴이 반이나마 늘거셰라

휠라이트(P. Wheelwright)에 의하면 물은 정화 기능과 생명을 지속시키는 기능을 함께 갖고 있는 복합적 속성에서 보편적인 호소력을 자아낸다. 그래서 물은 순결과 새 생명을 상징한다는 것이다.[12] 또한 옥은 비천함과 대비되는 고귀한 신분을 상징하며 백옥경, 옥루 등과 같이 임금을 상징할 때에 흔히 사용되어온 소재다. 둘 다 때 묻지 않은 고결함의 의미 범주에 속하는 단어들이다.

이는 '곱다'가 잘생긴 데에서 느끼는 미의식이 아니라 흠 없음, 깨끗함과 관련된다는 연구[13]와도 상통한다. 이 연구에 의하면 '곱다'는 크거나 거세지 않고 부드러워 거슬림이 없는 상태, 고르고 깨끗한 상태에 주로 사용되는 형용사라는 것이다. 그리고 거친 것이나 불순한 것이 섞이지 않고 티나 흠이 없어 순수한 미를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곱다'의 기본 의미는 순수미로 규정된다고 하였다.

이 연구결과를 참고했을 때 송강 시가에서 군주를 고운 님으로 일컫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탐구 대상이 된다. 곱다라는 형용사는 통치자로서의 권위나 덕성, 분별력 등을 내포하는 형용사가 아니라 그저 순수함의 의미 범주에 해당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즉, 송강 시가의 경우, 군주에 대한 그리움은 순수한 대상에 대한 지향으로 환치될 수 있는데, 순수함은 오히려 정치적인 무력함을 환기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千萬里 머나 먼 길에 <u>고은 님 여희옵고</u>
내 ᄆᆞ음 둘 ᄃᆡ 업서 냇ᄀᆞ에 안자시니

---

12) Philip Wheelwright, *Metaphor and reality*, 김태옥 역, 『은유와 실재』(한국문화사, 2000).

13) 이에 비해 예쁘다는 주로 감각적 미의식과 관련된 경우에 사용하는 형용사이며 아름답다는 내면적 · 정신적 미의식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곱다와 차이가 난다. 고움은 남에게 구태여 호감을 불러일으키게 하거나 이목을 집중시키지 아니함에 비해 예쁨은 호감을 불러일으키고, 아름다움은 감명을 불러일으킨다는 언급이 이들 형용사 간의 차이를 요약적으로 나타낸다. 김성화, 「형용사 유의어 연구」, 『우리말교육』 2(부산교육대학교, 1993).

져 물도 ᄂᆡ 안 긋ᄒᆞ여 우러 밤길 녜놋다

-왕방연

애고 애고 이ᄂᆡ 슬픔 엇지ᄒᆞ면 조흘고
南漢中 갓치신 고은 님 엇지 엇지 ᄒᆞ시ᄂᆞᆫ고
晝夜의 慟哭 悲歌를 알 리 업셔 ᄒᆞ노라

-강복중

위에서 예로 든 작품들은 군주를 고은 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다른 작가의 시조들이다. 왕방연의 시조는 영월로 유배를 가는 단종을 호송하였다가 돌아오는 길에 지어졌다고 전하는 작품이다. 한편 강복중의 시조는 인조가 병자호란 때 피난했다가 청나라에 강복했던 일과 관련되어 있다. 이처럼 구체적인 역사 배경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들은 정치적으로 무력한 상황에 놓인 군주에 대한 정서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상통한다. 고귀한 신분이지만 실제적인 힘을 갖지 못한 상태에 놓인 군주에 대한 심정이 '고은'이라는 수식어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한편 고움의 세계는 그것의 순결함과 고귀함이 쉽게 동요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순수하면 할수록 그것의 완벽성은 외부의 미세한 자극에 의해서도 흔들릴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된다. 옥 같은 님의 얼굴이 반이나마 늙었다는 것은 원래의 고움이 훼손된 상태에 대한 작가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송강 시가에서 늙음의 상태는 주로 군주의 얼굴에 한정되어 있는데, 이는 정신적 차원에까지 미치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좀 더 작고 구체적인 상태에 대한 작가의 감성적인 관심을 드러낸다. 님의 늙음이라는 모티프가 나타나는 굴원의 〈이소〉와 비교해보았을 때 이를 좀 더 확연히 알 수 있다.

초목이 시들어 떨어지는 것 생각해보면	惟草木之零落兮
아름다운 미인 역시 쇠로해갈 것이 두렵구나	恐美人之遲暮
어찌하여 장년을 빙자하여 나쁜 행실 버리지 아니하며	不撫壯而棄穢兮
어찌하여 이런 태도 고치지 않으시는가?	何不改此度
준마를 타고 달려 나가신다면	乘騏驥以馳騁兮
내가 앞길을 인도하겠나이다.	來吾道夫先路

나쁜 행실을 버리지 않는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이소〉에서 미인의 늙어감은 외모의 쇠잔해짐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전체적인 행동과 마음가짐에 관련된다. 작가가 두려워하는 것은 군주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올바른 자세를 잊고 안일함에 빠진 상태에 있는 것이다. 송강의 작품에서 화자가 관심을 갖는 사항은 고움의 상태가 훼손되는 데에 있다는 점과 다른 것이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송강 시가에서 고운 님으로 묘사되는 군주의 모습에는 도덕적인 훌륭함이나 현군의 이미지 등이 아니라 순수함의 속성이 지배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부드러움, 순결함 등의 의미 자질을 갖는 고움은 그렇기 때문에 보살핌을 필요로 한다. 이는 송강 시가에 나타난 연군의식의 특징과 관련하여 논의할 사항이 된다.

IV. 군주에 대한 보살핌과 연군의식

시에서 시적 대상에 대한 묘사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화자 자신에 대한 생각을 나타내기도 한다. 대상에 대한 묘사에는 한편으로 자신을 어떠한 주체로 인식하느냐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군시가에서 군주를 형상화하는 방식을 분석하는 일은 결국 군주와 화자가 맺는 관계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파악하는 작업이 된다.

송강의 연군시가에서 화자는 군주에게 절대적으로 결부되어 있지만 그것을 수동성이나 자기비하와 같은 속성으로 쉽게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군주를 고움이라는 속성으로 표상하는 데에는 그를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내재적 심리가 감지되며, 이는 군주를 그 고움의 세계 속에 안전하게 머물러 있도록 지키는 것을 화자의 역할로 여기는 의식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14] 이러한 지향은 실제 행위 차원에서의 수행 여부와는 별개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

14) 송강의 훈민시조에서는 백성의 아픔을 모두 보살피고자 하는 자애로운 군주상으로 그려져 있다. 그러나 이는 백성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에서 제시된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바람직한 군주상이라는 점에서 앞에서 언급한 송강의 개인적 체험과 관련된 군주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다.

누군가를 보살핀다는 것은 그에 대해 마음을 쏟고 있다는 의미이며, 그의 상황을 궁금해하고 걱정하는 행위와 관련된다. 실제로 송강의 연군시가에서 화자는 온통 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다.

건곤이 폐식ᄒᆞ야 ᄇᆡᆨ셜이 ᄒᆞᆫ빗친 제
사ᄅᆞᆷ은ᄀᆞ니와 ᄂᆞᆯ새도 긋쳐 잇다
쇼샹 남반도 치오미 이러커든
옥누고쳐야 더옥 닐러 므슴ᄒᆞ리
양츈을 부쳐 내여 님 겨신 ᄃᆡ 쏘이고져
모쳠 비쵠 ᄒᆡ를 옥누의 올리고져

츈한고열은 엇디ᄒᆞ야 디내시며
츄일동텬은 뉘라셔 뫼셧ᄂᆞᆫ고
쥭조반 죠셕 뫼 네와 ᄀᆞᆺ티 셰시ᄂᆞᆫ가
기나긴 밤의 ᄌᆞᆷ은 엇디 자시ᄂᆞᆫ고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에서 각각 해당 부분을 제시한 것이다. 위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가 궁금해하고 있는 것은 추위와 더위, 식사, 수면 등 지극히 일상적이고 시시콜콜한 사항들이다. 그리고 이에 님의 몸이 상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데에서 님이 화자 위에 절대적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자의 걱정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여겨짐을 읽을 수 있다. 님은 조심하여 부드럽게 대해야 하며, 이에 부주의함 없이 정성 들이는 것이 화자의 역할로 여겨지는 것이다.

님에 대한 이러한 화자의 지극한 정성은 다양한 선물 모티프를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다. 선물을 주는 것은 의사소통 행위의 한 형태이며, 주는 측과 받는 측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상징화하고 표현한다. 선물 증여를 통해 받는 측은 주는 측의 의사를 전달받고, 주는 측은 이를 확인한다.[15] 특히 님을 위해 옷을 만드는 모티프는 송강의 가사와 시조 모두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해당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원앙금 버혀 노코 오ᄉᆡᆨ션 플텨 내여
금자히 견화이셔 님의 옷 지어내니

15) Barry Schwarts, "The social psychology of the Gift," *Journal of Sociology 73*(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7), pp. 1-11.

슈품ᄀᆞ니와 제도도 ᄀᆞᄌᆞᆯ시고
산호슈 지게 우히 ᄇᆡᆨ옥함의 다마 두고
님의게 보내오려 님 겨신 ᄃᆡ ᄇᆞ라보니
산인가 구롬인가 머흐도 머흘시고

내 ᄒᆞᆫ낫 산깁 젹삼 ᄲᆞᆯ고 다시 ᄲᆞ라
되나 된 벼ᄐᆡ ᄆᆞᆯ뢰고 다료이 다려
ᄂᆞᄂᆞᆫ ᄃᆞᆺ ᄂᆞᆯ란 엇게에 거러 두고 보쇼셔

〈사미인곡〉에서는 원앙금, 금자, 산호수, 백옥함 등과 같이 고급스럽고 화려한 재료를 동원함으로써 님에 대한 화자의 정성을 드러내고 있다면 위 시조에서는 행위의 반복성을 통해 님에 대한 지극한 마음을 담고 있다. 빨고 다시 빨고, 말리고 다시 말리고, 다리고 또 다리는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는 님을 위해 수고와 정성을 아끼지 않는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적삼은 나는 듯 날랜 님의 어깨를 더욱 맵시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즉, 위 시조에서 옷을 만들기 위해 투자된 화자의 노동은 궁극적으로 물 흐르듯 날랜 님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보살핌이란 어떤 것의 본질을 존중함으로써 그 본질 속에 있게 하려는 행위이다.[16] 그렇다면 님의 고귀함과 고운 자태를 더욱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는 옷 만들기 모티프는 님에 대한 보살핌의 정서를 드러내는 예가 될 수 있겠다.

이는 굴원의 〈이소〉에서 나오는 옷 만들기 모티프가 화자 자신의 정체감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과 비교할 때 더욱 두드러진다.

벼슬길에 나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허물만 입었으니	進不入以離尤兮
물러나서 나의 원래의 품성을 다시 닦으려 하네.	退將復修吾初服
마름나무와 연꽃으로 저고리 짓고	製芰荷以爲衣兮
부용으로 치마를 만들었네.	集芙蓉以爲裳
나를 알아주는 이 없어도 그만이어라	不吾知其亦已兮

16) 보살핌은 어떤 것을 그것의 본질 속에 있게 하고, 그것을 본질 안으로 되돌려 간직하게 하고, 그것을 해침에서 보호하는 것이다. 강학순, 「하이데거의 보살핌에 관한 현상학적 존재 사유」, 『철학과 현상학 연구』 18집(한국현상학회, 2001), 153쪽.

오로지 내 마음 진정 향기롭고 깨끗하다면야.	苟余情其信芳
내 모자를 더욱 높게 하고	高余冠之岌岌兮
노리개는 더욱 길게 하네.	長余佩之陸離
향기와 윤택이 뒤섞여 있으니	芳與澤其雜糅兮
맑고 깨끗한 품성은 손상되지 않네.	唯昭質其猶未虧

위 인용 부분에서 시적 화자는 마름나무와 연꽃, 부용으로 자신의 저고리와 치마를 만든다. 또한 모자를 더욱 높게 하며, 노리개를 더욱 길게 하는 행위를 통해 세상의 일에 괘념하지 않고 고고함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이처럼 굴원의 작품에서 옷 만들기 모티프는 화자 자신의 신념을 더욱 견고히 하는 상징적 행위라는 점에서 송강 시가와는 큰 차이가 있다. 즉, 굴원의 작품이 화자의 자존감에 강조점이 있다면 송강 시가는 군주에 대한 보살핌으로서의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송강 시가에서 화자는 님을 단순히 기다리는 여성으로 그려지기보다는 님에게 다가가기 위해 쉴 새 없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오ᄅᆞ며 ᄂᆞ리며 혜쓰며 바니니'와 같이 매우 동적인 움직임이 그러한데, 이는 일반적으로 군주에 대한 강렬한 욕망으로 이해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한편으로, 대상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그것을 통한 보살핌이라는 지향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남성성을 활동성과 동일시하고 여성적인 것을 수동성에 연결시키는 일반적인 도식과는 달리, 송강 시가에서 남성인 고운 님은 정적인 데에 비해 여성인 화자는 상대적으로 동적이다. 이는 송강 시가에서 님과 화자의 관계는 일반적인 남녀의 애정관계가 아니라 보살핌을 받는 대상과 보살피는 주체의 관계로서 상정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여성 화자의 관습은 한국시의 중요한 전통 중 하나로 일컬어지는데[17], 작품 속에서 여성 화자를 택함으로써 거둘 수 있는 효과 중 하나는 화자의 연약함과 대조되는 상대방의 남성성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김소월의 〈진달래꽃〉에서 님은 짓밟고 가는 행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매우 남성적인 속성으로 그려진다. 님은 절대적이고 무소불위한 위치에 있게 되며 여성 화자는 그에 모든 것을 맡기는 형국이 되는 것이다.

---

17) 정병욱, 앞의 책, 330쪽.

그러나 이와는 달리 송강 시가에서의 님은 순수함의 세계를 표상한다. 화자가 님에게 부여하고 있는 지배적인 속성은 순수함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님의 무지나 무능력을 비판하지 않게 된다. 또한 님과의 이별은 님의 무정함이나 냉혹함이 아니라 순수함의 한계 때문에 비롯된다.

이처럼 송강 시가에서 연군의식의 발로는 훌륭한 미덕을 지닌 대상에 대한 흠모나 추수의 감정이 아니라 지극히 고귀하면서도 연약한 대상에 대한 보살핌의 정서와 관련되어 있다.[18] 송강 시가에서 군주의 위상은 절대적인 권력자로서 자신의 위에 군림하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복종해야 하는 대상으로 그려지지 않는다.

님은 '텬샹'이나 '고쳐'로 표현되듯이 높은 곳에 있지만 그것은 권력의 위계질서에 따른 위치만을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혼탁함과 더러움으로부터 자리를 달리한다는 의미에서의 높음을 뜻한다. 고결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깨끗함과 높음은 흔히 그 의미가 상통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송강 시가에서 군주에 대한 연모의 정은 이러한 순수함에 대한 지향과 보살핌의 색조를 띤다.

한편 순수함을 지향하지만 이것은 그만큼 때 묻기 쉬운 세계이다. 아름다움이 정신적이고 내면적인 강함까지 내포할 수 있는 단어인 반면 고움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화자의 보살핌의 자세가 이끌어진다. 작품 속에서 여성 화자를 선택함으로써 얻게 되는 가치는 님에 대한 지극한 보살핌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그리고 송강은 이러한 효과를 작품 속에서 매우 곡진하게 구현해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18) 17세기를 지나면서 여성 화자 한시에서 님에 대한 관계가 변모되기 시작한다는 보고가 있다. 즉, 나를 지배하던 존재에서 내가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또는 절대적 관계에서 상대적 관계로 님의 위치가 변모된다는 것이다. 이는 한시를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이지만 송강의 국문시가에서도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이혜순, 「여성 화자 시의 한시 전통」, 『한국한문학연구』 19집(한국한문학회, 1996), 34-35쪽.

V. 맺음말

송강의 시조, 가사, 한시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보편적 주제 가운데 하나가 연군의식이다. 이들 작품을 이해하는 데 화자의 성격뿐만 아니라 시적 대상인 군주를 어떻게 그리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군주에 대한 묘사에는 그에 대한 화자의 자세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작가의 가치의식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송강 시가의 미적 특질을 설명하고, 시가사적 맥락에서 송강이 차지하는 고유한 위치를 설정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글은 송강 시가에 나타난 군주의 특성을 고찰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굴원의 〈이소〉 및 조선후기 연군가사들과 비교한 결과, 송강 시가에서는 고움을 군주의 지배적인 속성으로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고움의 의미분석을 통해 송강 시가에서 님은 순수함의 세계를 표상하며, 이는 군주에 대한 보살핌이라는 정서를 드러낸다는 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서는 송강 시가의 전후 맥락에 놓이는 다른 연군시가 작품들과의 중요한 차이이며, 송강의 문학 세계가 갖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송강의 연군시가를 정치적 복권을 향한 강렬한 욕망의 표현으로 파악하는 독법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님에 대한 보살핌의 정서는 님에 대한 욕망의 한 모습일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주로 자신의 억울함에 대한 호소에 치중해 있는 여타의 연군시가들이 담지하지 못하고 있는 요소로서 보살핌의 정서를 도출한 것은 이 글의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점에서 이 글은 송강의 연군시가를 단순히 정치적인 수사나 아유로 읽는 것을 지양하고 송강 문학의 특성을 새롭게 조명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학순, 「하이데거의 보살핌에 관한 현상학적 존재 사유」. 『철학과 현상학 연구』 18집, 한국현상학회, 2001, 153쪽.

김갑기, 「송강 정철 문학의 원류론」. 『송강문학연구』, 국학자료원, 1993, 444-451쪽.

김성화, 「형용사 유의어 연구」. 『우리말교육』 2, 부산교육대학교, 1993.

김진욱, 「굴원이 정철 문학에 끼친 영향 연구」. 『고시가연구』 11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3, 72-88쪽.

김진희, 「송강 가사의 수용론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9, 193-194쪽.

남광우 편저, 『고어사전』. 교학사, 2008.

박태남, 「시조 어휘의 작가별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1973, 16-44쪽.

백기수, 『미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108-110쪽.

서수생, 「송강의 전후미인곡의 연구」. 『논문집』 6집, 경북대학교, 1962, 15-22쪽.

선정규, 『이소, 장강의 시혼』. 천지인, 2010.

유창돈, 『이조어사전』. 연세대학교출판부, 1964, 72쪽

이혜순, 「여성 화자 시의 한시 전통」. 『한국한문학연구』 19집, 한국한문학회, 1996, 34-35쪽.

임홍빈 편저, 『한국어 사전』. 랭귀지 플러스, 2009.

정병욱, 『증보판 한국고전시가론』. 신구문화사, 1983, 251쪽.

정인숙, 「가사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목소리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1.

조세형, 「송강가사에 나타난 여성 화자와 송강의 세계관」.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2, 257-283쪽.

최규수, 「송강 시가에서 자의식의 비유적 형상화와 여성 화자의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5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2, 263-289쪽.

최진원, 『한국고전시가의 형상성』.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6.

Schwarts, Barry, "The social psychology of the Gift," *Journal of Sociology 73*.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7, pp. 1-11.

Wheelwright, Philip, *Metaphor and reality*. 김태옥 옮김, 『은유와 실재』. 한국문화사, 2000.

국 문 요 약

이 글은 송강 시가에 나타난 군주의 형상화 방식이 갖는 특징과 그 의미를 고찰한 것이다. 연군은 송강의 문학 세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제라는 점에서 작품 속 군주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는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주로 시적 화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온 것과는 달리 이 글에서는 군주의 특성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아 논의를 진행하였다.

다른 작가의 작품들과 비교했을 때 송강 시가에서는 군주의 지배적 속성으로 고움이라는 자질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고움은 군주가 지녀야 할 여타의 자질들과는 달리 순수함을 표상하며, 이는 보살핌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 글은 송강 시가에서 군주를 고운 님으로 형상화하는 것으로부터 권력의 지배자에 대한 복종이 아닌 연약한 대상을 보살피는 주체로서의 성격을 도출하였다.

이는 송강의 연군시가를 단순히 정치적인 수사나 아유로 읽는 것을 지양하고 보살핌으로서의 연군의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송강 시가 전반에 걸쳐 나타난 순수함에 대한 진지한 지향과 결부시켜 논의됨으로써 송강 문학의 특성을 새롭게 조명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투고일 2011. 11. 4.
수정일 2011. 11. 24.
게재 확정일 2011. 11. 29.
주제어(keyword) 송강(Song-Gang), 군주(lord), 고움(gentleness), 순수미(purity), 연군(love for the lord)